

축 사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불기 2567년 맞아 삼층석탑 점안식 및 봉축법요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신흥사 **법공 주지스님**, 신도회 **김동교** 회장님과 신도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성운** 부군수님, **이철** 도의원, **최정욱**, **지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신도회 여러분!

부처님께서서는 고통 받고 어려운 중생들에게 모든 만물은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

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라 하여 국가적 위기때마다 부처님의 혼을 담은 석탑과 예법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세대·남녀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생과 화합의 불교정신을 이 땅 위에서 구현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롭게 태어난 신흥사 삼층석탑의 점안식과 봉축요법식을 통하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 내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과 널리 베풀어 타인을 돕는 보시와 이행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가면서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신흥사 삼층석탑 점안식 및 봉축법요

식을 기쁜 마음으로 기리면서, 불자여러분의 수행정진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갖게 할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